▣ 그림 여행

이탈리아, 프라스카티, 빌라 토를로니아의 분수

(The Fountain, villa Torlonia, Frascati, Italy c. 1907)

존 싱어 사전트 (John Singer Sargent 1856 - 1925)

(캔버스에 유채 28 1/8 in x 22 1/4 in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붓질이 시원하고 경쾌한 존 싱어 사전트의 그림을 보면 언제나 기분이 좋다. 사전트는 미국 화가였지만 유럽에서 많이 활동했고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사전트의 그림에는 색채로 완벽하게 표현해 낸 빛이 가득 넘친다.

사전트는 인물화를 주로 그렸다. 인물화의 주인공은 사교적이었던 사전트의 삶을 반영하듯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초상화를 의뢰한 유명인이나 갑부들과는 거래가 끝난 후에도 돈독한 친분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사전트는 유명하고 부유한 친구들과 평생 어울려 살게 된다.

20세기 초 이탈리아 로마 근교의 어느 여름날, 분수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여인과 옆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그녀의 남편도 사전트의 친구들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 드 글렌, 남편의 이름은 윌프리드 드 글렌이라고 알려져 있다.

흰 드레스 위에 하얀 작업복을 걸치고 모자와 스카프로 햇빛을 가린 제인은 왼손에 팔레트를 들고 오른손으로는 캔버스에 붓질을 하며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이다. 돌기둥에 걸터앉아 두 발을 작은 의자에 올려 놓고 있는 것이 재미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대조적으로 난간에 기대어 느긋한 표정으로 그녀의 그림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그림을 그리는 아내와 동행해 벗이 되어 주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다. 세로로 된 캔버스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구도에서 옆으로 비스듬히 기댄 그의 모습은 그림에 균형을 맞춰 주고 단조로울 뻔한 그림 속에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화면 전체에 걸쳐 초록색이 녹아 들 듯 들어가 있어 여름에 보기에 정말 시원한 그림이다. 어느 나른한 여름 오후의 분위기가 한가롭게 느껴지고, 사이 좋은 친구 부부의 친밀한 한 장면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또한, 사전트가 옆에 이젤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그저 쉽고 편하게 보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사전트의 그림을 보고 있는 관객의 시선, 그림을 그리며 제인을 바라보는 사전트의 시선, 대상을 바라보는 제인의 시선, 그리고 제인의 그림을 보고 있는 남편의 시선 등 여러 가지 시선들이 중첩된 그림이라 다시 한 번 곰곰이 들여다 보게 된다.

《김동백》

www.fullertonsmile.com

A' DENTISTRY

나에게 꼭 맞는 틀니가 있는 곳!

PATIENTS' CHOICE AWARD

- 틀니전문
- 틀니수리 1-2시간안에 가능
- 자체 랩보유
- 임플란트 틀니

John S. Lee, D.M.D.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S.
Tuff Dental School, D.M.D.

714.449.1686

536 W Commonwealth Ave. #A, Fullerton, CA 92832